

출판계 움직임

‘출판인대학’ 영업책임자 세미나

출協은 출판인대학 제3기 강좌로 영업책임자 세미나를 오는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출판문화회관 강당과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갖는다.

출판사 영업실무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의 현행 유통구조 속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영업방법의 개발을 유도하는 실무 중심의 강좌들로 구성된다. 강좌기간 중 17·18일 양일간은 합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6월2일 까지.

이번 세미나의 주요 강좌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세일즈맨의 자기개발 =곽준상(한국세일즈훈련원장) 윤석근(웅진출판사 대표) ▲거래처 관리 =김병윤(한국산업교육연구원장) 안영일(판매전략연구원장) ▲소비자의 행동분석 =송용섭(중앙대 교수) ▲판매회법 =전영우(수원대 교수) ▲거래관계 법규해설 =채원식(변호사) ▲출판관계 법규 =한승헌(변호사) ▲한국의 도서유통 =윤형두(범우사 대표) 허창성(유통협의회 회장)

‘청소년과 고전’ 강연회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회장 나춘호)는 ‘청소년과 고전’을 주제로 세번째 강연회를 5월21일 오후2시 남산시립도서관에서 갖는다. 강사와 연제는 여류시인 김남조 교수의 ‘내가 읽은 고전’과 안병욱 교수의 ‘고전 속의 우리 정신’.

을지서적 ‘도서교환권’ 발행

을지로2가 내외빌딩 지하 내외 프라자에 자리한 대형서점 을지서적(대표 方龍男)은 작년 12월 이래 독자적인 도서교환권을 발행, 독자 저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서점가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도서상’에 「한국의 동굴」

제9회 ‘한국어린이 도서상’도 시상



출협이 마련한 제9회 한국어린이도서상 및 제6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이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 수료식과 함께 13일 출협 강당에서 베풀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마련한 제6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 부문에 「한국의 동굴」(남궁 준·서무송·석동일 공저, 아카데미서적), 제9회 한국어린이도서상 저작 부문에는 차원재씨(53·서울 봉은국민학교장)의 「시골빛 물감」(샘터사)이 각각 선정, 시상됐다.

87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과학도서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도서상은 이밖에 번역 부문에 「마이크로 코스모스」(범양사 출판부)를 번역한 홍옥희씨(33·한전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특별상은 「해양과학문고」 등을 발간한 이종춘씨(48·성안당 대표)에게 주어졌다.

한편 어린이도서상은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 「아기참새」(대교문화)의 김천정씨(41·한국무지개회 회원), 기획·편집 부문에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신세호)이 간행한 「경제동화전집」 전5권, 그리고 특별상은 고려가(대표 김낙천)가 펴낸 「만나라 이웃나라」(전6권, 이원복 글·그림)가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5월 13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 수료식과 함께 베풀어졌다.

계몽사 '어린이문학상' 시상

계몽사가 운영하는 제22회 소년 아동문학상 및 제7회 계몽사 어린이

문학상 시상식이 5월17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베풀어졌다.

소년아동문학상은 이재철 교수(단국대)의 「韓國現代兒童文學略史」에 주어졌는데, 이재철교수는 이 글에서 우리 아동문학사를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아동문학의 발전을 위해 또하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7회 어린이문학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장편동화·소년소설 ▲당선 = 류선열(36·충주 남한강국민학교 교사) 「술밭골 별신계」 ▲가작 = 서로석(44·대구 경운국민학교

교사) 「두 사람」

◇단편동화 ▲당선 = 정대연(45·광주여고 교사) 「바지 벗은 아기섬」 ▲가작 = 박숙희(35·경북 경주시 성건동 496-2) 「진주가 된 가리비」

◇동요·동시 ▲당선 = 박일(42·부산 동천고교 교사) 「봄비」의 2편

◇동극 ▲당선 = 임정진(25·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3/405) 「방학일기」

이날 시상식에는 동 문학상 운영위원장 소설가 정비석씨, 언론인 송지영씨, 계몽사 김원대회장 등을 비롯, 아동문학가·출판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계몽사가 운영하는 제22회 소년아동문학상에 이재철교수, 제7회 계몽사어린이문학상에 류선열씨 등 6명이 각각 선정, 시상됐다. (17일 출판문화회관)

액면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의 네가지로 발행, 자기 서점 판매도서에 한해 통용되는 이 도서교환권은 특히 선물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그동안 주로 액면 3만원 이하의 저액권이 200매 이상 판매되었다고.

외국에서도 입학·졸업축하, 생일선물, 시상용 등으로 도서권이



활용되고 있는데, 영국의 '북 토큰'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에서는 일본도서보급주식회사가 1960년 이래 공동도서권을 발행, 전국 서

점에서 통용되고 있다.

월간 「홈토피아」 창간

가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월간 「홈토피아」가 계몽사에 의해 5월호로 창간됐다.



「생각하는 부모, 자유로운 어린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홈토피아」 창간호는 어린이의 연령

단계별 행동양식을 진단한 '어린이는 자란다'를 특집으로 다룬 외에 '우리네 조기교육의 결과 속' '어린이 발견' '주부의 사회학' '육아기' 등을 비롯한 생활교양·생활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국배판 256면·4000원)

계몽사는 현재 과학전문지 「월간과학」도 발행하고 있다.

'교보문고' 사원 20명 해외연수

교보문고(대표이사 愼東宰)는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사원들의 일본연수를 실시한다.

2차에 나누어 3박4일씩 실시되는 이번 연수에는 1차로 鄭石熙출판홍보과장 등 11명(18일~21일), 2차로 9명(24일~27일)의 사원이

참가한다. 주로 매장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수팀은 東京과 大阪의 대형서점, 도매기구, 대형 출판사들을 견학하게 된다.

'열린책들' 주소 이전

도서출판 '열린책들'(대표 洪池雄)이 지난 5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149-5 문원사빌딩 203호로 이전했다. 전화는 739-8173

'아카데미' 사무실 옮겨

도서출판 아카데미(대표 김태식)가 서울 마포구 용강동 215로 사무실을 옮겼다. 대표전화는 712-7788.